



바람같은 설득력 & 불같은 추진력 작은 거인 황주홍의 확실한 존재감 아무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국정 감사장에서 우리 지역의 수발아 피해를 입은 벼를 들고 나와 정부의 피해 대책을 이끌어냈다. 황주홍 의원이 가장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사진이기도 하다.

싸우지 않는 국회의 상징
300만 농어민의 마지막 대변인

황주홍 3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3	민생당	황주홍	남	1952.02.27 (68세)	국회의원	미국 미주리대학 정치학 박사 (1985년~1989년)	(현) 국회의원 (제19대, 제20대) (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3,660,955	△413,431	3,912,840	161,546	육군일병 복무만료 (소집해제)	없음

3. 세금납부 ·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117,840	없음	없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1,000,000 (2006.12.26.)
후보자	46,421	없음	없음	
배우자	69,426	없음	없음	
직계비속	1,993	없음	없음	

4. 소명서

황주홍의 정치적 약속 5가지

- 1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문대통령과 함께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농림부 장관 후보에 올랐던 제가 총선 승리 후 여야 협치 내각의 장관으로 참여하여 문대통령을 '최초의 성공적인 농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할 것입니다.
- 2 이낙연 전 총리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존경하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 3 **저의 국회의원 출마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좋은 후배 정치인을 키울 것입니다. 저는 새 길을 갈 것입니다.
- 4 계속해서 농수산 관련 상임위원회를 지키겠습니다. 저처럼 지금까지 8년 내내 농수산 쪽을 지키고 있는 국회의원은 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 5 최근 저는 저의 4개월 분 월급 전액을 코로나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이것은 300 명 국회의원들 중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의 월급 역시 우리 지역의 장학금으로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황주홍의 정치적 호소 5가지

- 1 국회의원에게도 일정한 도덕적 수준과 자질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무 때나 거짓말하고 무조건 상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며 심지어 "이 자식 저 자식"하는 등의 막말을 내뱉은 후보들을 걸러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 정치가 깨끗하게 됩니다.
- 2 대화와 타협의 가치를 모르는 싸움꾼, '지면서 이기는 정치'를 외면하는 싸움닭을 국회에 보내 시면 국회는 또 다시 싸움판, 난장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싸움꾼이 아닌 일꾼을 뽑으셔야 합니다.
- 3 과거에 실적이 있었던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과거를 철저히 물으셔야 합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던가를 따지셔야 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장밋빛 미래의 공약만으로는 옥석을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그 공약이 진짜 지켜질지, 아니면 '빌 공(空)자 공약(空約)'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과거와 과거 실적을 봐야 합니다. 과거를 봐야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4 물론 당(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당도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결국 인물(人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을 당만 보고 뽑아 놓으면 곧바로 후회하시게 됩니다.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은 당의 힘 없는 하수인이 될 뿐입니다. 인물다운 인물이라야 당에 끌려다니지 않고 당을 이끌어 더 나은 세상을 열수 있습니다. 역사는 당이 아니라 인물(지도자)이 만들어 왔습니다.
- 5 사람 하나 키워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저 황주홍을 10년, 20년 동안 키워주셨습니다. 이제 저를 3선 중진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호남의 가치와 이익을 지켜내는데, 이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 한번 제대로 그리고 아주 크게, 써먹으시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 황주홍의 최고 실력이 발휘될 때가 바로 이제부터**입니다.

황주홍은 어떤 사람인가

- 국회의원들의 그 금 뺏지(뺏지)라는 걸 단 한 번도 달아보지 않았다. 거드름 피우고 잘난 체하는 것을 생리적으로 거부하는 사람.
- **늘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지금도 거의 30만km가 다 되어가는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 국회의원.
- 검정색 승용차를 단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 격식과 권위주의 자체를 배격하고 싫어하는 사람.
- 매월 고흥교육발전기금, 보성군장학회,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강진군민장학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유니세프, 여성의전화, 홀트아동복지 등 20여 군데 자선봉사 단체에 소리없이 기부금을 내고 있는 사람. 가족이 없는 어린 소녀에게도 매월 학원비를 보내주고 있는 사람.
- 상식·교양·순리를 중시하며 인생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싶어한다. 틈나는 대로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산책을 즐기며, 늘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 「키는 작지만 생각까지 작지는 말자」고 스스로 다짐하는 사람.

황주홍은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는가

- 건국대 교수 시절 학생들에 의해 '올해의 최고 스승' 상을 수상했다.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지 않고 계속 야단치며 더 공부해야 한다고 질책하는 교수였는데도 학생들은 그를 참 스승으로 인정해주었던 것이다.
- 강진 군수에 당선되자마자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서울의 대학 교수직을 미련없이 던져버렸다. 당시 정길생 건대 총장 등이 극구 만류하였지만, 그는 소신대로 교수직을 사직했다. (이것이 **공직에 진출한 대학교수가 휴직하지 않고 사직해버린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였다.)
- 강진군수 시절 정당공천 폐지 국민운동 대표로 활동하면서, 만약 이 운동이 실패한다면 정당 공천 폐지의 뜻을 증언하기 위해 나 혼자라도 정당 공천을 거부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다. 이 약속대로 소속 정당을 탈당했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전국적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당선되었었다.) (그 이후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등 대선 후보들이 이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게 되었다.)
- 강진 군수를 3선하는 동안 공무원 인사를 할 때나 사업자 선정의 대가로 단 돈 1원 한 장 안 받고, 그 대신 모든 돈을 강진군민장학재단에 바침으로써 강진 군정을 투명한 반석 위에 올려놓고, 정원 미달이던 5개 고교를 모두 정상화시키는 등 강진교육을 살려내었다.
-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뜻이 맞는 동료 초선 의원들을 설득하여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그 이후 모든 대통령 후보들도 이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게 되었다.)

- 우리는 먹지도 않는 묵은 쌀을 굶주림에 고통받는 아시아·아프리카 5개 나라에 무상 원조하게 하는 조약(FAC) 가입을 최초로 주장했고, 마침내 국회에서 이 조약이 비준되게 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도 높이고, 국내 쌀값 안정에도 그만큼 기여하게 하다.
-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의 파행도 없이, 싸우지 않는 국회(상임위원회)를 이끌어 감으로써 언론과 동료 의원들로부터 싸우지 않는 국회의 상징으로 평가받기에 이른다.
-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간부급인 25명에게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지급되고 있었다. 그는 간부급인 상임위원장으로 **이 눈먼 돈의 수령을 거부한 단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었다. 그의 이같은 외로운 투쟁의 결과, 마침내 2019년 1월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게 되었다.
- 국회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권한이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이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법률안의 대표 발의와 본회의에서의 통과 건수에 있어서 300명 중 압도적 1위를 달성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황주홍 의원의 입법 실적은 실로 엄청난 성과”라고 공개적으로 극찬한 바 있다.
- 전국 농어촌 지역의 최대 민원사항은 **부동산 특별조치법(특조법)의 국회 통과**였다. 그는 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14년 만에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입법 능력과 지휘 능력을 발휘했다. (여야 동료 의원들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고 인간적 신뢰와 신임을 받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국회 내의 ‘꽃 보직’이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았을 때 정부와 여야 거대 정당들을 중재하고 타협시키는 지혜로운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정부 예산 최종 심사를 황주홍 의원실에서 개최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있었다. (정부 예산 심사를 개인 의원실에서 한 일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지역구는 물론이거니와 호남 전체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폭탄을 투하**했다.
- 여성·장애인·저(低)학력자들에 대한 직장 내에서의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위원회’ 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또한 우리 헌정사상 처음 시도된 입법 발의였다.
- 그는 대규모 첨단 농업단지(스마트 팜) (고흥), 해양관광레저타운 사업 (보성), 대한체육회 체육인 교육센터 (장흥), 광주-강진 고속도로사업 (강진)을 비롯한 수많은 국책 사업과 국비를 우리 4개 군 지역에 유치해왔다.
- 그밖에도 수도 없이 많은 크고 작은 민원 해결에 발 빠르고 집중력 있는 효과를 냄으로써 “이렇게 부지런하고 민원 잘 챙기는 국회의원을 본 적이 없다.”라든가 “황주홍 의원같은 국회의원들이 열 명만 있어도 국회가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에 넘치는 찬사도 받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저는 3선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한결같이 여러분의 편, 농어민의 편, 여성·장애인·저학력자의 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 300만 농어민의 마지막 대변인으로서, 싸우지 않는 국회의 상징으로서, 여성·장애인·저학력자의 친구가 되어, 우리나라를 더 반듯한 나라로 만드는 데 제 온몸을 던질 것입니다.
- 3선이 되면 저는 **아마도 당의 원내대표나, 협치 내각의 장관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예결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이 힘과 영향력과 논리력으로 농업예산을 3%에서 10%로 올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대통령을 설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농업 소득 1200만 원을 3천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끌어올리겠습니다. (농가 소득 3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 3선이 되면 원내대표로서 싸우지 않는 국회를 실현할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국회, 듣기만해도 신나고 멋있는 모습 아닌가요? 이 일은 3선 중진 의원으로서 여야 동료 의원들의 신뢰와 신망을 받고, 나름대로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저 황주홍이 아니면, 솔직히 하기 어려운 큰 과제입니다. **황주홍만이 이 망국적인 싸우는 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 3선 국회의원의 힘으로 더 많은 국가 예산과 더 큰 국책사업을 지역으로 가져오겠습니다. 황주홍 정치 인생의 최고 전성기를 맞게 되는 막강한 힘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 지도를 새롭게 바꿔 놓겠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호언장담이 아닙니다. 황주홍의 과거 실적이 미래의 약속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황주홍의 9대 실천 과제

1. 한국 정치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제정
-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반(反)특권법 제정**
-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실현
- 모든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법 제정
-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콘클라베법’ 제정
-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TV 토론회에 나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TV 토론을 회피하는 것이 후보자의 권리일 수 없습니다. TV 토론을 회피하는 후보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 검증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런 후보들이 나올 수 없도록 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관한 특별법**」(일명 「**김승남 방지 법**」) 제정
-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을 게재하고, **지방선거일을 6월 농번기에서 4월로** 옮기는 법 개정
- 기초단위(시·군·구) 정당 공천을 폐지해 공천권을 주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겠습니다. (6개월 이상 모든 자료 보관 의무화)

2. 농업을 이렇게 성장시키겠습니다

-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농업 예산 비중을 현행 3%에서 10%까지 늘릴 것입니다.
- **국가가 지급하는 농민수당** 제도화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확대 시행
- **3조원 이상의 공익형 직불금** 규모 확보
- 5대 민감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지역 생산 할당제 법 제정
- **농산물 가격안정제**(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 비현실적인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선하고,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
- 유자 절임을 농산물로 포함시키고 농사용 전기료 할인 확대
- **면세유를 적기에 쓸 수 있도록** 개선
- 농어업 재해보험의 제도 개선
- **공공비축미 매입시 우선 지급금이 아닌 일시금** 제도 시행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국비 지원
-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인 재입식 방안 마련
- 청년농업인들의 창업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 여성과 고령 농업인에게 편리한 농기계 기술 개발 보급
- 치유농업 활성화로 새로운 소득 창구 개선

3. 수산업을 이렇게 성장시키겠습니다

- 수산직불제 적용 확대 (적용범위를 수산업과 어촌으로 확대)
- 해양치유 활성화 도모
- 지방어항 지정 및 어업기반 정비
- 「**김산업 육성법**」 제정
- 한전 「전기공급약관」 개정으로 수산분야 농사용 전력 적용 확대
- 수산물 계통 판매제 도입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강화하고 처리장 시설 확충
-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식·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
- 양식보험 국고 보조율 확대
- 양식업의 스마트화, 규모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어업용 면세유 제도 영구화

4. 호남의 미래를 짊어지겠습니다

- 호남 고속철도, 남해안 철도, 경전선 조기 개통
-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 지역간 균형발전 위한 **상생 발전기금 관련 법 제정**
-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
- 2차 공공기관 호남 이전 추진
- 인구균형 유지를 위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 호남권에 기후·대기산업 복합 실증화 클러스터 조성
- 어촌 뉴딜 300사업 대규모 유치(고흥·보성·장흥·강진 포함)

5. 복지 혜택을 늘리겠습니다

- 저상 버스 도입으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 효행장려금 제도
- 국비로 어르신 기저귀 제공
- **경로당 위생 강화, 경로당장 수당** 지급
- 생활 SOC 복합센터 확충, 의료·돌봄 서비스 보완
-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과 건강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 확대
- 인건비와 운영비 현실화로 **생활지원보호사 등 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 산불방지대원 등 재난 안전 요원과 복지 요원들의 지위와 예우 보장
- 출산 장려 시책 강화
-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인도 및 도로 정비
- **육아 휴직의 국비 지원**
- 보육지원 개선
- **시간제 돌봄 단가 인상**으로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 초등학교 아침 간편식(주먹밥, 영양떡, 컵과일 등) 제공
- 로컬 푸드 등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 보호 위해 초등학교에 가상현실(VR) 체육관 보급
-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차별해소를 위한 「유리천장위원회법」 제정
- 장애인과 저학력자도 차별받지 않도록 법률 개정하고 예산 확보
- 장학 기금 및 장학교육지원 확대
- 방법시설 개선 통해 방법 사각지대 해소
- 노인 일자리 내실화 및 복지 실현
- 도서민들에게 **1000원 여객선, 100원 택시 국비 지원**
- 간척지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 코로나 충격으로 어려운 **전국 1,500만 가구에 120만원씩 긴급 생활자금** 지원



6. 고흥 발전을 위한 황주홍의 약속

- **고흥-봉래 4차선** 확포장 (국도 15호선)
- **대서-도양 국도 77호선 승격**
- **고흥 도양 - 장흥 안양 연륙교** 건설
- **대서-두원 연륙교** 건설
- 남양 중산-우도 인도교 건설
- **월파 서민호 선생 기념사업회**
- 벌교-우주센터 철도 연결
- **차세대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 고흥만 간척지 첨단농업단지
- 국가 식품·의약 융복합 허브 기반 (동강)
- 녹동 북항 방파제 피항지
- **도양읍·과역면 도시가스** 공급
- 고흥 유자 테마공원 (풍양)
- 해창만 유희지 어린이 테마공원
- 시산항 항내 준설 매립
- 시산도·득량도 광역상수도 공급
- 시산도 일주도로 건설
- 나로도 항만 매립
- 봉래 애도 출렁다리 설치
- **고흥 축구고등학교** 설립
- 농수축산물 팜스테이 (동강)
- 김 거래소 유치
- 김 가공공장 건축물 적법화 조치
- 남열리 해양레저 스포츠 단지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진입도로
- 장애인 수용 복지시설 설치
- 죽암권역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 금산 전복 냉동가공 공장
- 미역 자동화 시설 국고 보조 80% 확대
- **풍양농협 벼건조 저장시설**
- 오마권역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사업
- 고흥 - 포두 국도15호선 우회도로
- 영남 남열리 방파제
- 영남 팔영대교 가는 길 개선
- 점암면 팔영산 문화센터
- 여호항 방파제 설치
- 과역 도야마을 해안도로
- 과역 하수종말처리장
- 도양 남촌어촌계 어민복지회관
- **소록도 사적지 지정 및 문화재 등록**
- 고흥읍 소재지 들어가는 길 개선
- 정화조 수리 등으로 **깨끗한 고흥천 완성**
- 고흥읍 호산 앞에 산업단지(1조 7600억 규모)
- 고흥2지구 우수저류시설
- 두원 복지회관 건설
- 운대 저수지 개선
- 두원농협 유자사업소
- **고흥읍 소아과 전문 병원**

7. 보성 발전을 위한 황주흥의 약속

- 국립 차연구소 설립
- 차의 생산·가공·유통 체계 개선과 차밭 공원화·레저단지 조성
- 주암호 주변 내륙 생태관광지
- 치유농업과 해양치유 활용 맞춤형 일자리
- 첨단 스마트 팜 사업 유치
- **울포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 득량만 및 여자만 자원회복 어장환경 복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개발사업
- **해양미래과학관** 건립
- 남도의병 역사공원
- 미력 - 보성 군청 진입도로 확포장
- 보성강댐 퇴적토 준설
- 보성 북내 - 화순 남면 도로개설
- **보성 노인회관 이전 신설**
- 국도 18호선 및 국도 29호선 교차지 추가 램프
- 노동 광곡마을 선형개선
- 미력 장고을마을 입구 도로 확장
- 군두사거리 - 득량주유소 부체도로
- 득량 - 울포 도로개선
- 득량 금능뜰 배수펌프
- 득량 오봉리 보흥마을 하천 복개
- 득량 예당 요양·양로시설 유치
- 득량 박실마을 입구 통로박스
- **주암댐 피해 보상 강화**
- 문덕 **임산물 소득원 경영실습센터**
- 문덕 발 박물관 조성
- 조성 **키위 수출전문단지** 조성
- 조성 농공단지 소득증진을 위한 국비 지원
- 조성 배수장, 펌프장 신설 및 배수로 개보수
- 회천 빛축제 활성화
- 회천 **전남 교육수련원**
- 회천 **감자 완제품 공장** 건설
- 벌교 상이군경 특별지회 설립 및 충혼탑 공원화
- 벌교 홍교다리 복원 및 주변 공원화
- 벌교 - 낙안 4차선 확장 공사
- 벌교 천변 부근 4차선 확장
- 벌교 부용산 공원화 사업 추진
- **벌교 천변 광장 조성**
- 벌교 장애인 복지관 유치

8. 장흥 발전을 위한 황주흥의 약속

- **제 2선수촌** (국가대표 선수 훈련장)
- 전국 유일 귀농 귀촌 체험단지 (부산면)
- **축산 농가 위한 축분처리장**(2개소) 설치
- **노력항 고등어 선망어업단** 유치
- 노력항 **여객선 재취항** (금년 중)
- 한국 치유농업진흥원 유치
- 스마트팜(첨단기술 활용 농장) 유치
- **해양레저관광지사업** 유치
- 미역 자동화 시설 국고 보조 80% 확대
- 국가 위인공원 조성 (이순신·안중근 성역화)
- **장흥 안양 - 고흥 도양 연륙교** 건설
- 국도 23호선(유치 - 대덕) 4차선 확장
- 지방도 839호선 4차선 확장
- 지방도 843호선 연결 도로 추진
- 지방도 820호선 터널 작업 후 확장 공사
- **수출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

- 김 가공공장 건축물 적법화 설치
- 진균류 식·의약품 산업화 실증지원 사업
- 미세먼지 및 온난화 질환 제어소재 개발센터
- 펩타이드 의약품 원료 생산시설
- 장흥군 도시민 유치타운 조성
- 장흥 **버스터미널 주변 환경 정비**
- 말 힐링 복합공원 조성
- 장흥담 부근 **생수공장** 건립
- 유치·부산 밀원수 조림 확대
- 안양면 모령지구 배수로 구조물화 추진
- 안양 기산 - 울산 간 위임국도 18호선 4차선
- 용산 지하수 오염 대책 마련
- 용산 남포 - 장제 간 연륙교 보상
- 용산 남포마을 사고방지 공사
- 관산 다목적 회관 신축
- 관산읍 농안리 - 대덕읍 연지리 도로
- 관산 동백나무숲 관광단지화
- 천관산 - 오산(청다리길)포장
- 장흥 대덕 - 강진 마량 구간(12km) 정비
- 장동면 신북 **구석기유적지 복원 및 선사 역사관** 건립
- 장동·장평 사거리 로타리
- 골프장 방향 도로공사
- 장흥대교 양쪽 회전교차로 설치

9. 강진 발전을 위한 황주홍의 약속

- **신전면 사초리 - 마량면 연륙교**
- 광주 - 완도(2단계) 고속도로 건설
- **작천 무인 IC 설치(광주 - 강진고속도로)**
- 스마트팜 유치 및 작천 도정공장
- 강진만 청정해역 재생사업
- 영산강 3단계사업(도암 - 영동) 수로 개설
- **지방도 827호 가치내재 터널 공사**
- **국립 청소년문화예술센터** 및 김인 바둑 문화관
- 청자도요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 강진 농산물 유통센터
- 강진만 생태체험관
- 강진만 도시생태축 복원
- 국립 축산 창업교육센터
- 스마트팜 클라우드 시스템
- 별서정원 재정비
- 무위사 - 도갑사 2차선 도로
- **병영성 내부 복원 및 복원사업 조기 완공**
- 금곡사 입구 도로 신설
- 광주(출발) - 강진(도착)버스 병영면 정차
- 푸소(농촌형 민박) 농가 위한 특례조항
- 강진 - 마량 방향 차량 쉼터 및 지역 농산물 판매처 조성
- 김 가공공장 건축물 적법화 설치
- **아프리카 조각 박물관**
- 대단위 아열대 과일단지 조성
- 청자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
- **가우도 특화 개발**
- 분홍나루 종축 등 관광자원화
- 침체된 강진읍 일대 개발
- 강진향교 입구 도로 신설
- **칠량 광역상수도** 설치
- 특화작목을 이용한 장미공원 조성

황주홍의 발자취

- 광주일고 졸업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정치학사)
-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정치학석사)
- 미국 미주리대학교 졸업
(정치학석사 1982~1985 · 정치학박사 1985~1989)



◆ 경력

- 미국 미주리대 정치학과 강사 (전)
-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연구교수 (전)
-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학과장 (전)
- 아태평화재단 연구실장 · 기조실장 · 부총장 (전)
- 김대중 대통령 자문교수단 총무이사 (전)
- 국회 정책연구위원 실장(1급) (전)
- 강진군수 3선 (39, 40, 41대)
-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공동회장 (전)
- 정당공천제폐지 국민운동 상임공동대표 (전)
- 국민의당 최고위원 (전)
-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 사무총장 (전)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
- 국회의원(19 · 20대) (현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현재)
- 한국 · 헝가리 의원 친선협회 회장 (현재)

◆ 저서와 번역서

- 현대정치와 국가 (연세대학교출판부, 1992)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1992)
- 서양정치사상 (문학과 지성사, 1993)
- 토니블레어 : 영국개혁 이렇게 한다 (중앙M&B, 1998)
- 패자부활전이 있는 나라 (풀빛출판사, 2000)
- 패자부활전 : 희망의 다른 이름 (풀빛출판사, 2002)
- 지도자론 : 한국의 리더와 리더쉽
(건국대학교출판부, 2002)
- 황주홍 교수의 미래학 산책 (조선일보사, 2002)
- 강진군에서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 군수가 벼슬이랑가? (전남대학교출판부, 2011)
- 새 정치 난상토론, 국민은 비록 틀렸을지라도 옳다
(이지북출판사, 2013)
- 한국의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다 (열린아트, 2016)
- 싸우지 않는 정치 : 민심의 정중앙에 서다 (다니엘123, 2019)

사랑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곁으로 돌아올 때까지 더욱 풍요롭고 꿈이 실현되는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을 만들겠습니다.
장병 여러분의 건강과 무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후보 황주홍